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연구위원
ngchoi@kiep.go.kr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ygkim@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EU, 아세안 등과 FTA를 마무리한 데 이어,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
 - 한·중·일 3국간 FTA 협상도 2012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동아시아 주요국간 FTA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데, 한·중·일+아세안과 더불어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2012년에 착수
- 최근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는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제도적 통합도 많이 이루어져 있음.
 - 또한 중간재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짐. 특히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생산과정이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음. 우리나라로서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국간 FTA를 통해 무역·투자 등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고 CGE 분석기법을 통해 부가가치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동아시아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 최근 들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2년에 23.7%였으나 2011년에 28.4%로 증가
 - 유럽연합(EU)과 북미국가(NAFTA)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6년에 각각 33.7%, 30.1%였으나, 2011년에는 25.2%, 25.8%로 크게 하락

-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992년의 18.8%에서 2011년에는 26.8%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2.4%, 18.6%에서 38.3%, 14.2%로 감소
 - 수입 비중도 동아시아는 1992년의 17.6%에서 2011년에는 26.7%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1.6%, 17.5%에서 38.0%, 16.2%로 감소
-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은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역내 국가간의 교역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비중은 1990년의 33.0%에서 2000년에 40.6%로 높아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현재 43.8% 수준임.
 - 동아시아의 중간재교역 추이를 보면 1996년의 6,533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2조 1,95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중간재수출이 동아시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의 60.9%에서 2009년에는 60.7%로 큰 변화가 없었음.
 - 이에 반해 중간재의 동아시아 역내수출은 1996년의 1,686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6,6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역내 중간재수출 비중은 1996년의 26.5%에서 2009년에는 30.3%로 크게 증가했음.

[표 1] 주요 경제권별 역내 중간재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경제권	중간재수출		중간재 역내수출		중간재수입		중간재 역내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6	동아시아	653.3	60.9	168.6	26.5	570.4	65.8	168.6	29.6
	EU	1525.1	58.3	926.9	60.8	1,438.9	61.1	926.9	64.4
	NAFTA	757.7	66.5	241.5	31.9	677.6	57.1	241.5	35.6
	기타 국가	724.9	68.3	103.0	14.2	956.1	66.0	103.0	10.8
2000	동아시아	705.3	59.0	190.2	27.0	678.7	67.9	190.2	28.0
	EU	1,815.3	59.4	1,075.7	59.3	1,710.3	61.3	1,075.7	62.9
	NAFTA	922.7	64.0	349.1	37.8	974.6	55.3	349.1	35.8
	기타 국가	986.7	69.7	117.8	11.9	1,066.4	68.5	117.8	11.0
2005	동아시아	1,296.7	60.6	359.8	27.7	1,309.0	72.2	359.8	27.5
	EU	2,717.5	60.5	1,579.1	58.1	2,626.7	62.5	1,579.1	60.1
	NAFTA	1,173.1	67.7	438.8	37.4	1,339.7	57.9	438.8	32.8
	기타 국가	1,884.0	74.2	241.8	12.8	1,796.0	69.8	241.8	13.5
2009	동아시아	2,195.0	60.7	664.5	30.3	2,287.5	76.1	664.5	29.1
	EU	3,718.4	62.4	2,050.9	55.2	3,477.7	63.7	2,050.9	59.0
	NAFTA	1,540.5	69.9	468.3	30.4	1,456.6	58.3	468.3	32.2
	기타 국가	2,539.3	77.4	380.4	15.0	2,771.3	67.6	380.4	13.7

자료: World Input Output Tables DB(검색일: 2013년 4월 3일)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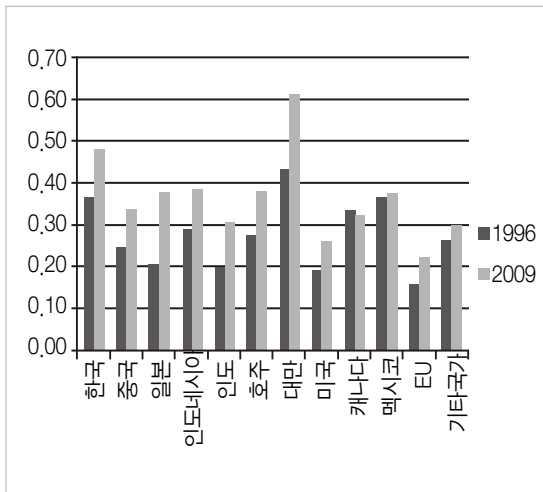
- 최근 거대경제권간의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통합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들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EU와 일본 간의 FTA,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라 불리는 미국과 EU 간 FTA 등과 같은 거대경제권간의 FTA가 활발하게 추진
 -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3개 국가는 작년 12월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함.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FTA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불리는데, 작년 12월에 협상이 시작됨.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은 각각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들 5개의 양자간 FTA를 통합해서 동아시아 경제를 통합하려는 논의가 공식화된 것임.

나.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

- 본 연구는 1996~2009년 기간의 12개국, 16개 산업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구조 현황을 분석
 - 특히 동아시아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느 정도 참여하며,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지수화해서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정도를 측정
-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지수는 수출을 통한 간접 부가가치와 외국의 부가가치의 합계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음.
 -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1996~2009년 동안 한국(0.37→0.48), 대만(0.43→0.61), 중국(0.24→0.34), 일본(0.20→0.38), 인도네시아(0.29→0.38)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지수는 크게 상승한 데 반해 미국(0.19→0.26), 캐나다(0.33→0.32), 멕시코(0.37→0.38) 등 NAFTA 경제권과 EU(0.16→0.22)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제3국 수출을 통한 간접 부가가치와 외국의 부가가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알아볼 수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를 산출하면, 동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0.05→-0.12)과 대만(-0.19→-0.12)이 한국(-0.11→-0.1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일본(0.08→0.09)과 호주(0.02→0.11)는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의 값이 플러스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의 경우 중간재 수출비중에 비해 중간재수입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 등의 경우에는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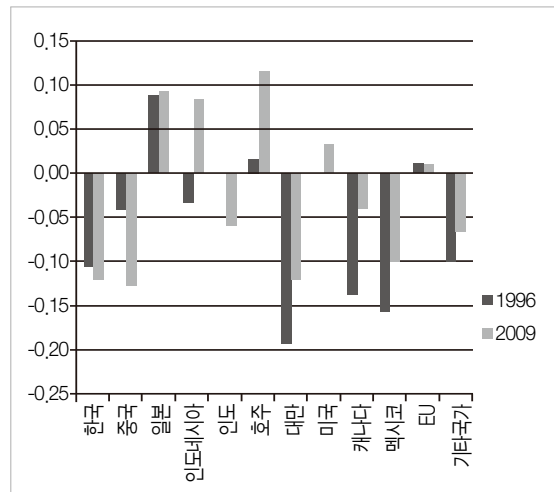
- 한편 미국(0.00→0.03)을 제외하고는 NAFTA 경제권 국가들은 GVC 위치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보였으며, EU(0.01→0.01)는 지수의 변동이 없었음.

[그림 1] GVC 참여지수의 국제비교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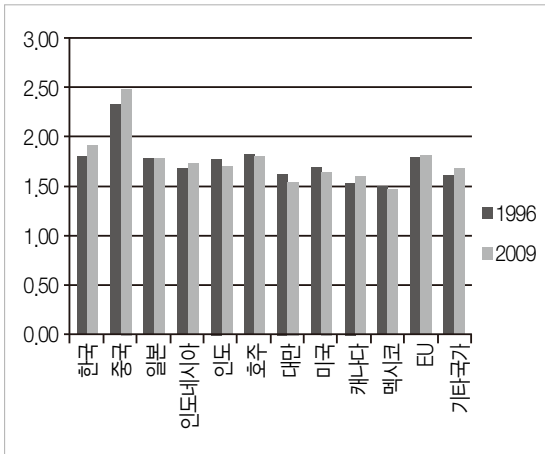
[그림 2] GVC 위치지수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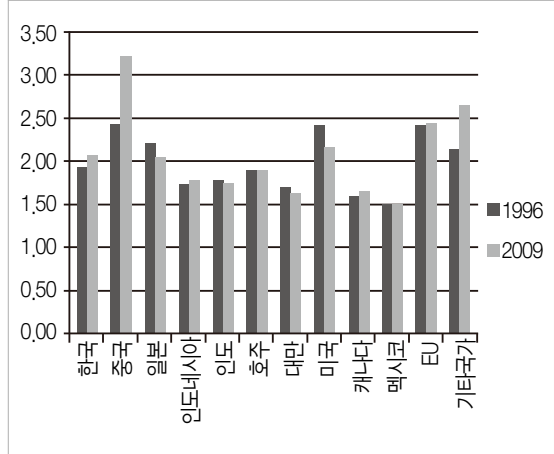
- 다운스트림지수를 통해 생산과정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단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NAFTA와 EU 등 여타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1996년의 1.99에서 2009년에 2.35로 높아졌으며, 기타 경제권도 1.83에서 2.02로 높아진 반면 EU(1.91→1.99), NAFTA(1.84→1.80) 등은 큰 변동이 없었음.
 - 국별로 보면 한국의 2009년 수치는 2.52로 중국(2.83) 다음이지만, 1996년에 비교한 상승폭은 분석 대상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짐.
-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EU 및 NAFTA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가 국내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빠른 속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다운스트림지수의 추이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업스트림 지수의 추이



자료: 저자 작성.

● 국제 업스트림지수를 통해 재화가 생산된 이후 최종수요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가를 살펴보면 다운스트림지수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의 변화가 두드러짐.

-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업스트림지수는 1996년의 2.03에서 2009년에는 2.40으로 증가했고, 기타 국가도 같은 기간 동안 1.73에서 1.92로 증가했지만, EU(1.97→2.04)와 NAFTA 경제권(1.87→1.81)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남.
-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2.43→3.22)이었으며, 한국(1.92→2.07)도 높게 나타났다.

● 동아시아의 국제 업스트림지수는 여타 경제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상류(업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EU와 NAFTA 경제권의 업스트림지수가 대체적으로 다소 침체한 데 반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간재와 부품의 공급기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다. 동아시아 FTA의 원산지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구조 분석

●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역내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41개국,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국간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분해

- 무역에 따른 부가가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와 외국 부가가치로 분해되며, FTA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게 됨.
-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편입될수록 역내통합이 가속되며, 역내통합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사슬구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분석결과를 보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역내부가가치의 비중이 상승했는데 이는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200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점차 국제 생산네트워크에 다양한 국가들이 편입되면서 부품이나 반제품 등 중간재 교역상대국이 다변화되었고, 그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내창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임.

● 한·중간의 부가가치구조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한·일간에는 부가가치 창출구조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특히 한·일간 중간재교역에서 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장속도 및 기술격차 등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아세안을 포함하여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아세안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충분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 한국의 대(對)중 및 대(對)일 수출에서의 역내부가가치 비중(%)

	중국에 대한 수출			일본에 대한 수출		
	1996년	2000년	2009년	1996년	2000년	2009년
농림어업	76.3	75.7	72.2	82.1	82.3	73.6
광업	0.0	0.0	12.5	0.0	0.0	4.7
음식료품	50.9	75.5	68.4	20.6	32.5	17.9
섬유의복	39.3	45.8	48.4	38.8	44.6	37.7
가죽	28.8	32.1	27.1	28.6	32.8	30.3
목재	62.8	58.1	55.3	60.3	62.1	43.3
종이인쇄	74.0	74.9	71.5	73.2	71.1	93.1
석유석탄	3.9	0.0	71.5	3.6	0.0	45.0
화학고무플라스틱	55.7	46.3	45.7	92.2	75.3	52.4
비금속	0.0	79.3	81.4	85.9	83.6	94.3
금속	54.7	61.8	82.2	58.6	64.9	47.3
기계	43.6	50.9	35.4	63.1	54.7	34.2
전자	41.6	43.1	38.8	46.1	47.0	40.3
운송	52.0	72.3	35.1	72.7	62.6	36.2
기타 제조업	66.6	74.3	52.0	38.8	44.0	30.1
서비스업	69.4	62.1	67.9	83.4	76.4	70.0

주: 음영은 부가가치 비중이 40% 미만인 경우임.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 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기준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 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特惠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아울러 가치사슬구조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라.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라 어떻게 영향받는지 분석함.
 - 또한 지역경제통합이 양자간의 FTA에 비해 동아시아 가치사슬구조의 효율적 활용과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논거의 타당성을 분석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축차 동태 CG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의 형태로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추정결과를 제공함.
 - 정책실험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 중인 한·중, 한·일, 한·중·일, RCEP에 대해 90%의 개방 시나리오와 역내산 부가가치에 대한 두 가지(40%, 50%) 시나리오를 설정
- 주요한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FTA의 성장 효과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한·일 FTA 순으로 효과가 컸으며,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실험 결과도 유사했음.
 - 한·중 FTA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데 비해, 한·중·일 FTA와 RCEP 등에서는 다른 협상국과 중국시장을 분할하게 되거나 FTA를 기 체결한 아세안의 경우 추가자유화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
 - 또한 양자 FTA에 비해 한·중·일과 RCEP 등 협상참여국이 확대될수록 부가가치기준의 강화에 따른 악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사슬이 여러 협상국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FTA별 산업효과를 살펴보면 FTA 참여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비교우위에 의한 각국별 역할분담(생산 분할)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과 더불어 비교열위 산업에 대한 국내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3] 부가가치구조에 따른 FTA 효과 모의실험(경제성장, %)

FTA	원산지규정	2016~20년	2021~25년		
		성장률	성장률	(B-A)/Ax100	B-A
한중	역내산 40% (A)	1.54	3.60		
	역내산 50% (B)	1.46	3.42	-5.19	-0.18
한·일	역내산 40%	0.15	0.34		
	역내산 50%	0.14	0.33	-6.67	-0.01
한·중·일	역내산 40%	1.45	3.54		
	역내산 50%	1.39	3.42	-4.14	-0.12
RCEP	역내산 40%	1.46	3.32		
	역내산 50%	1.41	3.22	-3.42	-0.1

자료: 저자 작성.

- 산업별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양자 FTA에서 지역경제통합으로 확대될수록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일수입의 경우 한·중·일 FTA나 RCEP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일본과의 양자 FTA에 따른 우려는 TPP 참여나 한·중·일 FTA, 또는 RCEP에 참여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FTA가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생산변화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국내재와 수입재의 배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TA가 역내산 부가가치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가시적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FTA 효과를 살펴보면 한·중 FTA와 한·중·일 FTA, RCEP의 성장효과는 다소 증가한 반면, 한·일 FTA의 효과는 다소 감소
 - 이는 두 기간 동안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대일본 교역의존도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향후 부가가치구조가 더욱 변화할수록 심화된 교역관계로 인해 FTA의 절대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역내 부가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역내산 기준이 강화되면 원산지 누적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특혜 관세 적용률이 낮아지게 됨.
 - 따라서 부가가치구조가 변화될수록 양자 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국가가 포함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함.

3. 정책 제언

가.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 필요성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고 생산단계가 길어지면서 동일한 중간재가 여러 나라의 관세를 중복적으로 부과받는 결과가 나타남.
 - OECD(2013a)에 따르면 관세가 5%인 중간재가 5개국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경우 최종재 가격은 10.5% 높아지지만, 10개국을 거치면 25.8%가 높아짐. 또한 관세율이 높아지면 관세가 증폭되는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 관세가 20%인 경우에는 중간재가 5개국과 10개국을 거치는 경우 최종재 가격은 각각 48.8%와 159.6% 상승하게 됨.
- 국내수출자는 총액 기준 수출액, 다시 말해 외국의 부가가치가 포함된 수출품의 액면가격 모두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를 부과받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수출자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인식하는 관세율은 명목관세율을 국내부가가치의 비율로 나눈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음.
 - 수입부품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명목관세율이 낮아도 부가가치 관세율은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남.
- 최근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고 생산단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실질적 부담으로 느끼는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짐.
 -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함.

[표 4] 부가가치구조 변화에 따른 FTA 효과 모의실험(경제성장, %)

FTA	부가가치	1996년도 기준			2009년도 기준		
		2016~20년	2021~25년		2016~20년	2021~25년	
		GDP	GDP	(B-A)/Ax100	GDP	GDP	(B-A)/Ax100
한중	역내산 40% (A)	1.53	3.57		1.65	3.70	
	역내산 50% (B)	1.47	3.39	-5.04	1.57	3.45	-6.76
한·일	역내산 40%	0.15	0.35		0.14	0.33	
	역내산 50%	0.14	0.34	-2.86	0.12	0.29	-12.12
한·중·일	역내산 40%	1.43	3.52		1.45	3.53	
	역내산 50%	1.39	3.40	-3.41	1.48	3.42	-3.12
RCEP	역내산 40%	1.45	3.31		1.57	3.45	
	역내산 50%	1.41	3.19	-3.63	1.49	3.22	-6.67

자료: 저자 작성.

나.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 및 FTA 활용률 제고

-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가치사슬구조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국제생산 분업구조의 발달로 인해 최종재에서 각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앞으로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당사국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의 FTA보다는 복수국간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주요국이 체결한 FTA의 서비스협정 내용을 보면, 자유화 스케줄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공통점이 있으며, 많은 서비스 FTA 협정에서는 FTA 비참여국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FTA 협정은 많은 경우에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FTA 상품협정의 경우에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및 부가가치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 비용 때문에 FTA 활용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HS품목분류,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함.

다. 무역원활화 및 무역규범의 조화

- 국제무역에 있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를 제거 및 인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품의 이동에 소요되는 자료의 수집, 제출, 소통 및 처리와 관련한 행위, 관행 및 요식절차 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Moisé *et al.*(2011)에 따르면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조치가 제품가격을 13.7%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관절차의 단순화(5.4%), 원산지 사전심사(3.7%), 통관서류의 자동화(2.7%), 통관수수료(1.7%) 등을 통해 통관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통관과정상 서류의 불일치에 따른 무역원활화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SPS), 기술장벽(TBT) 등도 무역거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의 환경 및 기술규제가 각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더불어 표준, SPS, TBT 등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고, 무역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

- FTA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효과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불확실하지만, 규범의 조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FTA는 특혜적인 무역기회를 제공하므로, FTA 대상국이 아니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속하는 국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됨. 하지만 FTA는 회원국의 무역관련 규범을 조화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이 됨.

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6%와 80%에 이르며,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각각 75%와 89%에 달하고 있음.

- 서비스 부문은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OECD(2013a)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 산업별로 보면 화학(33.8%), 음식료품(33.5%), 운송기기(33.1%), 섬유(33.0%), 기계(30.7%), 광업(22.7%)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이들 산업의 수출 부가가치의 1/3 정도를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는 유통 및 수리,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 및 창고,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 국내 경쟁력이 제조업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심화 추세는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규제 완화, 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등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마.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감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중간재의 교역비중이 높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는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연관구조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와 태국의 홍수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및 조달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효과적 가치사슬 구성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미국은 재화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고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안보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 OECD는 회원국간의 리스크 관리정책을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 등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처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정책대화를 개최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벤치마킹해서 국내기업들에 대한 글로벌리스크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G20에서 글로벌리스크를 평가 및 제어하기 위한 정책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제안하고, OECD가 현재 추진 중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부록

[부표 1] 주요 경제권별 · 부문별 산출 및 고용 비중

(단위: %)

		산출				고용			
		1996	2000	2005	2009	1996	2000	2005	2009
동아시아	농업	4.3	4.7	4.4	4.5	50.5	49.5	46.2	41.1
	광업	1.1	1.2	1.6	2.6	1.3	0.9	0.9	1.0
	제조업	36.7	36.3	38.7	42.8	14.4	13.7	14.6	16.0
	서비스	57.9	57.8	55.3	50.1	33.9	35.9	38.3	41.9
EU	농업	2.9	2.3	2.0	2.1	8.7	8.5	6.3	5.5
	광업	0.8	0.6	0.6	0.7	0.6	0.4	0.4	0.3
	제조업	30.7	30.6	28.1	26.3	19.7	18.2	16.8	15.6
	서비스	65.6	66.5	69.3	71.0	70.9	72.8	76.5	78.5
NAFTA	농업	1.9	1.6	1.6	1.7	5.4	4.6	4.4	4.5
	광업	1.3	1.2	1.9	2.7	0.5	0.4	0.5	0.5
	제조업	26.6	24.5	21.5	20.6	14.6	14.2	11.8	10.4
	서비스	70.1	72.7	75.0	74.9	79.5	80.8	83.2	84.5
기타 국가	농업	7.3	6.6	6.3	6.1	27.5	24.4	21.8	19.0
	광업	6.4	7.8	10.4	10.1	0.8	0.7	0.7	0.6
	제조업	31.2	30.0	28.9	26.4	15.1	14.8	14.7	14.0
	서비스	55.1	55.6	54.4	57.4	56.6	60.0	62.8	66.4

자료: Social Economic Accounts DB(검색일: 2013년 4월 3일)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2] 동아시아의 산업별 산출 및 고용 비중 추이

	산출				고용			
	1996	2000	2005	2009	1996	2000	2005	2009
농업	4.3	4.7	4.4	4.5	50.5	49.5	46.2	41.1
광업	1.1	1.2	1.6	2.6	1.3	0.9	0.9	1.0
음식료	4.7	4.8	4.5	4.6	2.1	2.2	1.9	1.9
섬유	2.3	2.1	2.2	2.6	2.3	2.2	2.7	3.1
가죽 · 신발	0.4	0.4	0.4	0.5	0.3	0.4	0.5	0.6
목재	1.0	0.8	0.7	0.8	0.8	1.0	1.1	1.3
종이 · 인쇄	1.8	1.7	1.6	1.4	0.6	0.7	0.9	1.1
석유 · 석탄	1.3	1.4	1.9	2.4	0.1	0.1	0.1	0.1
화학 · 고무	4.8	4.7	5.2	6.3	1.5	1.5	1.6	1.8
비금속광물	1.6	1.6	1.5	1.7	1.5	1.1	1.0	1.0
금속	5.8	5.2	6.0	7.8	1.3	1.1	1.1	1.1
기계 · 장비	3.1	3.0	3.3	3.2	1.1	0.8	0.9	1.0
전자기기	5.0	5.9	6.2	6.8	0.9	1.0	1.1	1.3
운송기기	4.2	4.1	4.6	3.9	0.6	0.5	0.6	0.7
기타 제조업	0.8	0.7	0.6	0.7	1.2	1.1	1.0	1.0
제조업 전체	36.7	36.3	38.7	42.8	14.4	13.7	14.6	16.0
서비스	57.9	57.8	55.3	50.1	33.9	35.9	38.3	41.9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Social Economic Accounts DB(검색일: 2013년 4월 3일)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3] 지역간 총 교역 및 중간재교역 비중

		동아시아 → EU	동아시아 → 동아시아	동아시아 → 기타 국가	EU → EU	EU → 동아시아	EU → NAFTA	EU → 기타 국가	NAFTA → EU	NAFTA → 동아시아	NAFTA → 기타 국가	기타 국가 → EU	기타 국가 → 동아시아	기타 국가 → NAFTA	기타 국가 → 기타 국가
		(단위: %)													
〈지역간 수출〉															
1996	16.4	24.1	22.6	36.9	60.5	7.1	10.7	21.7	18.7	14.8	35.5	30.9	36.8	24.6	25.0
2000	17.4	23.6	26.7	32.3	59.8	6.4	13.8	20.0	18.5	11.3	42.7	27.5	34.5	25.4	28.6
2005	17.5	24.9	23.7	33.9	59.0	6.7	10.9	23.4	19.1	12.2	41.2	27.5	33.4	30.2	23.8
2009	17.8	26.1	19.5	36.7	56.2	8.9	8.2	26.7	19.1	16.6	33.8	30.5	31.9	35.5	17.0
〈지역간 중간재 수출〉															
1996	14.5	26.5	17.3	41.7	60.8	6.4	11.2	21.6	19.8	14.1	31.9	34.2	37.2	27.1	21.4
2000	15.7	27.0	19.5	37.9	59.3	5.9	13.3	21.5	19.6	11.0	37.8	31.6	34.7	28.3	25.0
2005	15.6	27.7	17.4	39.3	58.1	6.5	10.1	25.3	19.8	12.2	37.4	30.6	32.6	33.4	21.2
2009	15.9	30.3	14.7	39.2	55.2	9.3	7.7	27.8	19.5	17.9	30.4	32.2	30.6	39.4	15.0
〈지역간 수입〉															
1996	21.4	29.0	19.5	30.1	67.1	7.3	9.1	16.6	23.7	19.9	34.1	22.3	39.1	26.6	24.3
2000	19.5	28.2	16.3	35.9	65.5	7.4	9.5	17.5	24.0	18.1	35.0	23.0	39.2	24.8	25.4
2005	16.6	29.4	11.7	42.4	63.0	8.9	7.9	20.2	21.1	21.9	30.9	26.1	40.9	28.2	18.5
2009	17.7	31.4	12.2	38.7	61.3	11.8	7.7	19.2	19.7	28.1	29.8	22.4	38.8	32.3	16.4
〈지역간 중간재 수입〉															
1996	17.2	29.6	18.7	34.5	64.4	6.4	10.4	18.8	25.3	16.2	35.6	22.9	34.4	27.7	27.1
2000	15.9	28.0	14.9	41.2	62.9	6.5	10.6	20.0	24.8	14.1	35.8	25.3	36.6	25.0	27.3
2005	13.5	27.5	10.9	48.0	60.1	7.7	8.8	23.4	20.5	16.9	32.8	29.9	38.2	28.3	20.0
2009	15.2	29.1	12.0	43.7	59.0	10.0	8.7	22.3	19.5	22.1	32.2	26.2	37.4	31.0	17.9

자료: World Input Output Tables DB(검색일: 2013년 4월 3일)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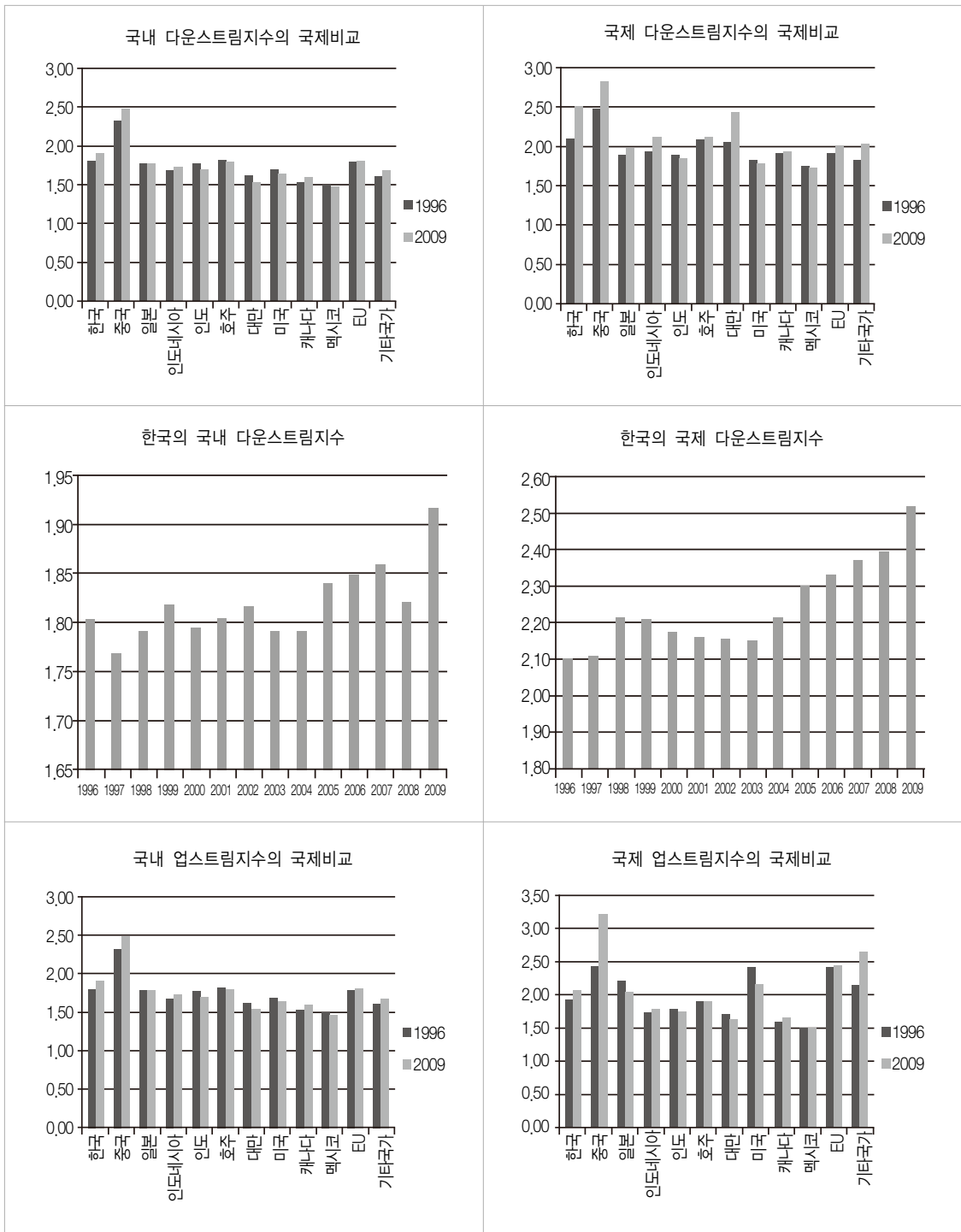
[부표 4] 주요 산업의 지역간 수출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10억 달러, %)														
	동아시아 → EU	동아시아 → 동아시아	동아시아 → 기타국	EU → EU	EU → 동아시아	EU → NAFTA	EU → 기타국	NAFTA → EU	NAFTA → 동아시아	NAFTA → NAFTA	NAFTA → 기타국	기타국 → EU	기타국 → 동아시아	기타국 → NAFTA	기타국 → 기타국	
〈지역간 수출금액〉																
2000	금속	9.6	29.1	21.4	26.6	146.9	11.6	20.7	29.3	5.9	5.1	45.5	6.6	36.6	27.1	23.0
	기계	15.0	19.5	28.0	28.0	143.8	22.7	45.7	60.7	18.5	14.4	38.7	23.0	16.2	11.1	10.5
	전자	53.4	54.4	93.6	80.6	251.1	35.3	54.7	91.9	51.1	39.9	124.6	66.9	61.4	69.1	104.3
	운송	27.3	13.5	55.5	42.3	275.5	17.7	60.2	70.5	31.8	11.7	156.1	32.5	8.0	1.9	6.4
2009	금속	35.0	106.0	44.5	118.3	273.9	31.5	22.3	107.8	10.1	19.1	65.7	24.8	64.4	94.7	28.0
	기계	40.9	66.9	49.6	67.4	222.4	81.8	42.0	130.2	17.2	24.8	41.3	37.7	30.3	34.7	15.7
	전자	174.1	256.0	240.3	314.3	304.6	84.1	45.6	145.4	36.7	66.8	94.0	75.1	44.6	207.2	49.7
	운송	62.9	44.9	59.9	139.3	392.8	50.4	53.3	148.9	41.5	25.7	130.8	64.1	26.9	11.8	10.5
〈지역간 수출비중〉																
2000	금속	11.1	33.6	24.7	30.7	70.4	5.5	9.9	14.1	9.3	8.1	72.1	10.5	36.4	26.9	22.8
	기계	16.6	21.6	30.9	30.9	52.7	8.3	16.7	22.2	19.6	15.2	40.9	24.3	34.2	23.5	22.2
	전자	18.9	19.3	33.2	28.6	58.0	8.2	12.6	21.2	18.1	14.1	44.1	23.7	22.4	25.2	38.1
	운송	19.7	9.7	40.1	30.5	65.0	4.2	14.2	16.6	13.7	5.0	67.2	14.0	33.5	7.8	26.8
2009	금속	11.5	34.9	14.7	38.9	62.9	7.2	5.1	24.7	8.5	16.0	54.9	20.7	25.7	37.9	11.2
	기계	18.2	29.8	22.1	30.0	46.7	17.2	8.8	27.3	14.2	20.5	34.1	31.1	29.7	33.9	15.3
	전자	17.7	26.0	24.4	31.9	52.5	14.5	7.9	25.1	13.5	24.5	34.5	27.5	13.1	60.7	14.6
	운송	20.5	14.6	19.5	45.4	60.9	7.8	8.3	23.1	15.8	9.8	49.9	24.4	36.0	15.7	14.0

자료: World Input Output Tables DB(검색일: 2013년 4월 3일)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자료: World Input Output Tables DB(검색일: 2013년 4월 3일)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록 그림 1] 다운스트림지수와 업스트림지수의 추이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 CGE 분석의 국가 분류

	국가 분류	국가코드
1	한국	KOR
2	중국	CHN
3	일본	JPN
4	미국	USA
5	EU(27개국)	EU
6	아세안	ASN
7	대만	TWN
8	인도	IND
9	호주, 뉴질랜드	AUS
10	기타 세계	RoW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 CGE 분석의 기간 시나리오

기간	기초(Baseline) 시나리오	FTA 시나리오
제1기 (2008~10년)	각국(지역)별 경제성장률, 노동증가율, 인구증가율 반영	한·중·일·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제2기 (2011~15년)		한·미, 한·EU FTA 발효
제3기 (2016~20년)		한·중, 한·일, 한·중·일, RCEP
제4기 (2021~25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7] CGE 분석의 개방 시나리오

시나리오 약어	원산지규정 (부가가치 기준)	양허 수준
VA40	역내산 40%	90%
VA50	역내산 50%	90%

자료: 저자 작성.